

한국교육시설학회 제5회 학생공모전 소고  
**“지역재생”과 “교육시설” 연관 짓기**  
 Proposals for the Community Regeneration Programs



이 현 희 / 정회원, 가천대 건축학과 교수  
 Lee, Hyun-Hee / Professor, Gachon University  
 hhlee@gachon.ac.kr

제5회 한국교육시설학회의 교육시설공모전 주제는 『지역재생 거점으로서의 학교』였다. “재생”은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최근 주요 키워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시설공모전의 주제가 “재생”과 관련되어 선정된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시도였다고 할 것이다.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부각하고, 학교 건축설계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 관련 공모전이 지양해야 할 의식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시설공모전 주관 기관의 공모전 안내서에 따르면 작품 진행을 위한 몇 가지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각기 개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 것, “지역이 학교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으로 열린 학교, 학교로 들어온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 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과 ‘학교’에 대해 제안할 것 등이다. 간단하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를 생각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고려하라는 지침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디자인 프로젝트로써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을 매개로 지역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고민하였던 노력에 감사하면서, 수상 작품 중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적인 제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 산업’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제안**

창신동 봉제골목, 성수동 구두골목, 마석 가구단지, 문래

동 철강골목 등 특정 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역을 사이트로 선정하여 특정 산업과 학교를 연계로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 제안들이다. 해당 지역산업지구 내에 위치한 기존의 학교를 일종의 직업전문 대안학교 또는 주민센터로 제안하였다. 특선 이상으로 선정된 작품 중에서 최소한 4개 이상의 작품이 이러한 성향을 보이며, 이번 공모전의 주제에서 나타난 뚜렷한 경향으로 보인다. 그 중 <그림 1>은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학교」라는 제목의 최우수 작품으로서, 마석 가구단지 내의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가구학교 및 전시 판매시설, 주민시설을 제안한 작품이다. 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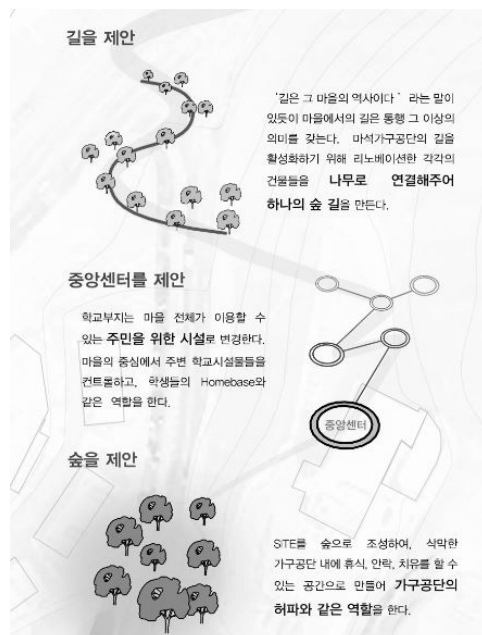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학교」  
 마석초등학교 직업전문 대안학교 제안

초등학교 부지에 중앙센터가 되는 주민시설을 계획하고, 이 중앙센터에 이르는 길을 따라 가구와 관련된 교육, 판매전시, 복리후생 등을 위한 일련의 기능들을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역재생을 제안하였다. 한편 <그림 2>는 「꼬마 예술사를 위한 골방학교」라는 제목의 장려상 작품으로서, 쇠퇴하고 있는 문래동 철강산업단지 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유희공간으로 남겨진 철공소 건물을 매력적인 초등학교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철공소 건물의 높은 천정과 철의 물성을 살려서 계획된 초등학교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재생시설이 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그림 3> 「Regional is Education Facility」라는 작품도 봉제산업과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비록 학교와 관련된 직접적 제안이 아니라 현존하는 창신동 봉제골목 건물의 상부에 봉제 관련 교육

공간을 증축하는 제안으로 그치고 있으나 지역산업을 지역재생의 시작으로 본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구두학교 ; 발자취」 작품은 성수동 구두산업과 도시재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구두거리를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은 크게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학교 공간 계획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는 한계가 보인다.

이번 「지역재생 거점으로서의 학교」라는 주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해석 방향으로 보인다.

## 2. '담'과 '길'의 재해석을 통한 활성화 제안

학교시설은 주변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쇄적인 학교 담자를 개방형 담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부 길과 학교 운동장 사이는 개방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주변지역은 여전히 단절되고 통행은 차단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담장은 그 자체가 거대한 장벽(barrier)이 되고 지역과 단절되는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긴 담과 길의 관계를 재해석하여 계획하는 안은 4회 공모전에서부터 부각되고 있는 제안이다. 학교 잉여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제안에서도 학교의 담에 대한 재해석은 자주 등장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 담에 대한 고민이 표현되었고 이를 지역



그림 2. 「꼬마예술사를 위한 골방학교」 문래동 철강단지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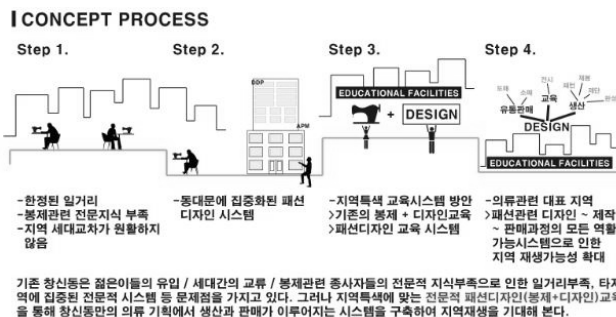


그림 3. 「Regional is Education Facility」 창신동 봉제골목 활성화 제안



그림 4. 「담장 사이에서 마주하다」 덕성여고와 덕성여중 사이의 담장과 길에 대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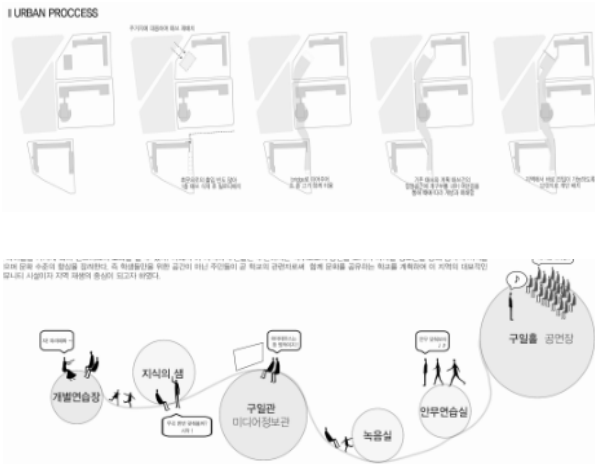


그림 5. 「Cantabile Communion」  
구일초중고 음악학교 특성화 교육시설 계획안

재생을 제안하였다. <그림 4> 「담장 사이에서 마주하다」라는 작품에서는 덕성여고와 덕성여중 사이의 높은 담장으로 단절된 좁은 골목길을 흥미로운 사이공간으로 제안하고 있다. 학교 담 사이의 공간은 교정과 맞닿은 지역문화 이벤트 광장으로 조성되고, 인근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녹지와 연계되는 도서관 야외공원과 연결된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학생, 교직원들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며, 방문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장소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이 서로 스며들게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사이공간에서 제안된 건축 공간은 조금 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주민/학생들의 공간이라 명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한편 <그림 5> 「Cantabile Communion」\_ 구일초중고 음악학교 특성화 교육시설 계획안은 일반적인 계획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학교군을 사이트로 하고 있다. 초중고가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되어 있는 조건은 즐거운 School road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나 동시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초중고가 인접되어 있는 배치 특성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상호 배타적인 조건이 되어 폐쇄적인 길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초 중 고가 같은 꿈을 꿀 것을 제안한다. 각 학교가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 것이다. 작품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을 공통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공유시설은 인접한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주민과도 공유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능 기부형 음악특성화 학교로 계획되어 지역 재생의 거점이 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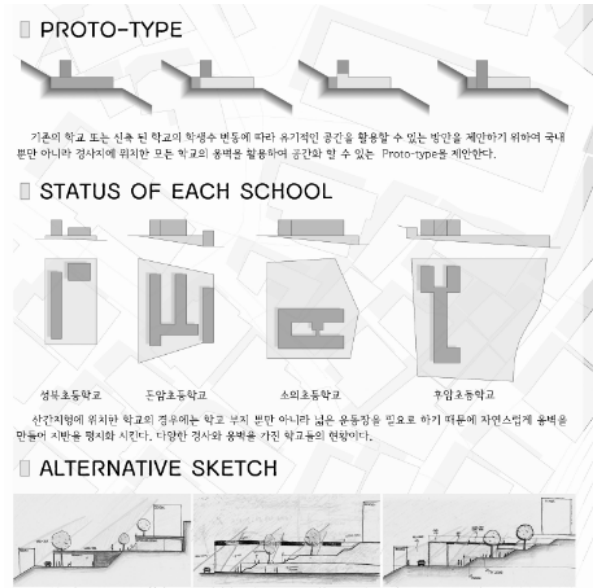


그림 6. 「도심 속 비밀기지」  
옹벽의 공간화를 통한 지역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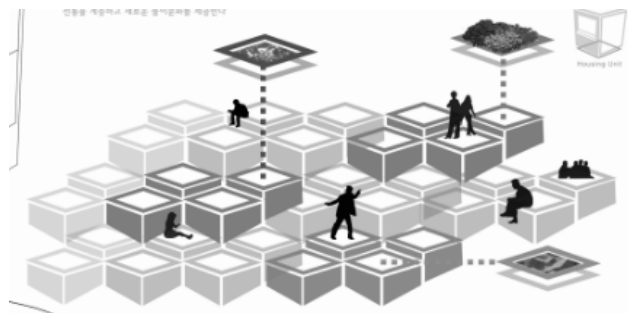


그림 7. 「Share the Hill」  
언덕을 공유하다

### 3. '한계'의 재해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제안

굳이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라는 점을 상기시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경사지에 자리한 학교가 적지 않다. 특히 80년대의 인구 증가에 맞추어 건축된 많은 학교들은 경사지 또는 언덕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고, 이 학교들은 경사지에서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학교 주변과는 옹벽이라는 형태의 경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6> 「도심 속 비밀기지」\_ 옹벽의 공간화를 통한 지역 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단절의 요인이었던 옹벽에 지역과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새롭게 계획된 공간은 학생과 주민들의 공유공간이 될 것이며, 사용시간대와 사용목적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비슷한 경향은 <그림 7> 「Share the Hill」\_ 언덕을 공유하다 라는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학교와 주변을 단절시키는 경사지에 주민을 위한

주차시설과 지역문화센터를 계획하여, 어린이와 주민에서  
 쉽의 공간의 제공하는 제안이다. 이를 통하여 단절의 요인  
 이었던 장벽은 연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4. 여전히 주요한 제안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가  
 가속되면서 적지 않은 학교가 미니학교의 규모로 축소되  
 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된 학교 여유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은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당면  
 과제이며, 교육시설 공모전이 시작되고 난 이후 지속적으  
 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공모  
 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지역재생이라  
 는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주변 환경의 특성을 더욱 고려하  
 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MIX & MATCH」\_ 점층적 구성을 통한 교동초등학교  
 문화역사 공간 계획안은 1894년에 개교한 우리나라 최  
 초의 초등교육기관인 교동초등학교의 활용계획을 제안하  
 고 있다. 사이트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대학생, 외국인 등의 방문자와 예술가를 대상으로 주변  
 의 역사성을 고려하고 이것을 디자인 키워드로 반영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유사하게는 「문화예술의 통합을 통해  
 놀이터가 되는 학교」\_ 대구 수창초등학교 문화공간계획  
 안에서는 필요한 초등학교시설 외의 부분은 문화예술공간  
 으로 조성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 있  
 다. 이러한 제안은 폐교 위기를 맞은 농어촌의 분교를 지  
 역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이론교과와 실습 및 체험학습을  
 구분하는 다거점 학교로 운영함으로써 학교가 마을의 중  
 심공간이 되어 마을을 살리는 재생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작품들은 예년에 비해 공모전의 주제에  
 충실한 작품들이 많았다. 따라서 지역시설로서의 학교 건  
 축을 고민하고 학교 미래를 준비하려는 참가자들의 의지  
 도 강하게 느껴졌다. 아이디어가 건축적 제안으로 발전하  
 지 못한 아쉬운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학교 공간의 단조로움과 획일화된 한계에서 벗어  
 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전반적으로 지역과 학교가 어떻  
 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선하고 저돌적인 제  
 안들이 많아서 고무적이었다.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매력  
 이었다고 생각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교육 환  
 경 그리고 지역 환경에 반영되는 그날을 기대한다.